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발위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1월 6일(월) 제 3011호



2036올림픽 현장평가 리허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현장실사가 6일과 7일 전북에서 진행 될 예정인 가운데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3일 2036 하계올림픽 현장평가 대응 리허설을 가졌다. <사진=전북도>

## 道, 전북특별법으로 '친기업 도시' 혁신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① 친기업환경조성특례]  
 전북특별법 시행... '기업하기 더 좋은 도시' 윤곽  
 새만금 첨단산업의 요람... 인력수급 컨트롤타워 구축  
 민간이 이끌고 제도가 보장하는 전북 금융혁신 생태계 기틀

출범 1주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한다. 구랍 27일에 시행된 전북특별법은 기존 법에 담긴 선언적인 내용을 넘어 103개 조문이 추가돼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에 도는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지구, 수소경제 이행 촉진, 수산관련 등 총 6차례에 걸쳐 특례를 통해 바뀌는 전북의 미래상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새만금 첨단산업의 요람... 인력수급 컨트롤타워 구축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특례 △해의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를 통해 구현한다. 투자진흥지구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유리한 지역을 지정하고, 조세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방위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구축되며,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는 인재와 창업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민간이 이끌고 제도가 보장하는 전북 금융혁신 생태계 기틀  
 도는 △핀테크육성지구 조성 특례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 간점투자 활성화 특례를 통해 명실상부 금융중심지로 도약한다. 핀테크육성지구는 지역특화 디지털금융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을 집적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디지털금융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 전북자치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 경제, 산업, 농업 등 7개 분야 126건 제도·시책 발표도, 시군 민원실 비치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내 126건의 제도·시책이 달라진다. 도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돼 달라진 제도 및 시책을 7개 분야로 구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26개 내용의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산업=전북형 청년친화기업을 육성·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1천만원의 근무환경 개선금, 최대 1천5백만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그리고 1인당 최대 6백만원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이 포함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5억으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수산=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시행돼 농지에 간단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농촌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도내 10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농가에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원해(60만원/두) 농가 경영을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도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규모가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되며 스포츠강화 이용권의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복지·건강·안전=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기존 중위소득 75~85% 구간의 저소득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시에 문을 열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을 해소한다.  
 ▲환경·산림=환경보전이용권

이 신설돼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 1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또한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와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이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관되어 지역 산림 복지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건설·교통=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이 기존 2천만원에서 확대돼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원, 청년은 3천만원까지 무이자 용자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피해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300만 원의 대출 이자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행정·도민생활=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돼,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소민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지역 발전 핵심 동력 '새 하늘길' 연다

지난 6월 건설업체 선정 후 실시설계 추진 중  
 환경·재해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착착'  
 2025년 착공, 국비 632억 확보 29년 개항 목표

교통·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 축인 '새만금국제공항'이 2025년 착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순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건설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 중이며, 도민의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2023년 에어사이드 부문(활주로, 계류장 등)의 터기 입찰을 통해 지난 6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재해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건설은 지난 10월 설계 공모를 공고했고, 내년 초 설계업체를 선정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의 개발규모는 활주로(L=2,500m, B=45m) 1본, 주기장 5대, 여객터미널 15,010㎡, 화물터미널 750㎡, 주차장 696면, 진입도로 450m 등으로, 총사업비는 8천 77억 원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항은 15개이며, 이중 8개가 국제공항으로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미주, 유럽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김포국제공항 등 6개 거점공항에서는 동북아·동남

아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2,500m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6개 거점공항과 같이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와 필리핀·대국·베트남 등 동남아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선 항공수요 완전 회복, 새만금 투자유치 증가로 산업단지 개발 확대 등 변화된 여건을 새만금국제공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내년 2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수요 확대와 연계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謹賀新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군산시가 응원합니다.

군산시  
 GUNSAN CITY

# 청년 일자리정책,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 전북연구원, 청년 직장선택 기준 임금·복지·근로시간·근무환경 순...청년 눈높이에 맞는 시책 추진 필요

청년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을 양적 확대를 넘어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난해 12월 3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최근 사회적·정책적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work)로의 노동에 대한 시각으

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터'로, 청년들이 직장선택 시 주로 '임금 및 복지수준', '근로시간(워라밸)', '근무환경(65.7%)'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

도내 일자리 중 고용 안정성, 임금수준, 근로시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좋은 일자리는 지난 2023년 기준 15만7천182개로 지난 2013년 9만3천325개보다 6만3천857개 늘었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고 고용기회 확대, 좋은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일자리연구센터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단순 고용정책에서 일자리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 유입과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주는 일자리 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수은 책임연구원은 "좋은 일자리는 청년인구 이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좋은 일자리 연구·관리 전담 조직 운영, 좋은 일자리 인식조사 등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관 기자

# 전북자치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실질적 지원 강화

### 분만 산부인과 없는 7개 군 대상, 임산부 교통비 최대 70만원 지원·산전 진찰 최대 15회까지 보장 등 지원 확대

전북자치도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7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들의 병원 이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취약지역의 임신·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임신 10주에서 임신 진단일로 변경되며, 산전

진찰 지원 횟수도 기존 최대 12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58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나며, 분만 시 이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확대는 고령 임산부 증가 추세와 그간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초진부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

써 임산부들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다.

도는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임산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만250건의 교통비 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산전진찰 지원이 9천337건, 분

만 이송 지원이 913건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올해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도의회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제89호 발간

### 제414회 임시회·제415회 정례회 의정활동 내용 수록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해 12월 31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4 겨울호(제89호)'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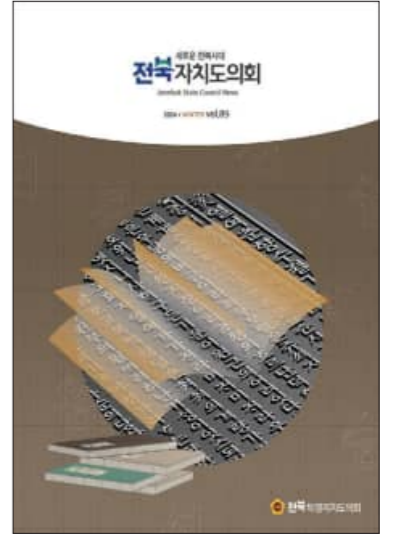
겨울호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제414회 임시회와 제415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123계업 사태와 관련해 무너진 헌정 질서와 국헌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전북을 견인하는 도의회의 포부를 담았다.

문승우 의장은 "도민이 의회에 부여한 사명을 잊지 않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로운 희망 전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겨울호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중국·일·베트남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등 사진으로 보는 의회를 수록했다.

제·개정된 조례와 건의·결의문도 정리됐다.

제·개정 조례는 전북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조례 등 57건이며, 건의·결의문의 경우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



등 23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공공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공직자들의 인적 쇄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민 정책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북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 발굴 등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QR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간행물편집위원장은 "이번 소식지는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과 겨울 분위기를 담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 도, 국가예산 확보 시동...5천3백여억 규모 신규사업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새해 벽두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일 오후 도청 중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제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모두 모여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7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377건, 5천3백여억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북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국책사업과 국책포럼을 통해 발굴한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 설립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 구축 등 대형사업들은 전북자

치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월 중순까지 3차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예산 반영률을 높이고 사전절차 이행과 부처 설명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해 첫 업무를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로 시작한 것은 예산 확보에 대한 도의 절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굴한 신규사업들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국별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 정동영 의원, 특별교부금 17억 확보... '주차난 해소' 등 기대



정동영 의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지난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7억원을 확보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금안초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전미동 진조리마을 농로·농수로 정비에 3

억 ▲산정 1길 보행자 조성사업에 2억 ▲소양교 내진보강 공사에 7억 등 모두 17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안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안동 금안초 인근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특교세 5억이 배정됐다.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불법주차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끊이지 않았던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미동 진조리마을 농로 및 농수로 정비 사업은 호우·태풍 등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이 배정됐다.

산정동 보행자길 조성사업은 특교 2억원이 배정돼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통행 편의 증진 위해 하천 부지 내 보행자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재난특교로는 '소양교 내진 보강 공사' 사업에 7억이 배정됐다.

/서울=김영목 기자

## 전북도, 민생살리기 속도전...1분기까지 4조8천억 집행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긴급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한과 및 대설 대비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시군에 요청했다.

도는 올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대책을 시

군에 제안했다.

민생경제 회복 특별대책을 위해 ▲지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검토 ▲도민 체감형 신규 시책 발굴로 민생 안정 직접 지원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쌀 명절 농산물 판촉행사 확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체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를 집

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상반기에는 63.5%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1월 초 각종 사업계획 및 신속집행 추진계획 조기 수립 ▲부시장·부군수 주재 집행 점검회의 수시 개최 ▲이월 예산 및 보조사업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한 민생 지원 강화 ▲계약 특례 적극 활용으로 집행 속도가

속화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민생 회복을 위해 1분기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을 대비해 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부 확인 및 관리 강화 ▲한과 심터 운영시간 약간까지 확대 등 재해 예방에 선제 조치를 취한다.

/김은지 기자

### 본사 사령

▲본사 지방부 한병일 부장, 임실 주재  
▲임실주재 정해영 기자, 본사 편집국

〈2025년 1월 6일〉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재개·이달 중 500억원 확대

### 민생 경제 회복 위해 올해 2000억 원 규모 발행·국비 추가 여부에 따라 발행 규모 확대 예정

전주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태로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급속히 위축된 지역경제의 임금채방을 위해 이달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시는 오늘 오전 0시부터 2025년도 전주사랑상품권(네지카드)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당초 교부세 감액과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집계된 골목상권을 도살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발행 규모를 2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1월에만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발행한다.

또, 1인당 충전 한도도 평소(50만 원)보다 두 배인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시는 올해 계획된 전체 발행 규모 2000억 원 중 상반기에만 1350억 원을 집중 발행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지방비에 이어 올해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발행 규모를 추가로 늘려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전주사랑상품권 앱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자에게 1월 충전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사랑상품권 앱(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주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 11월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4만 2000여 명이 가입했으며, 가맹점은 2만9000여 곳에 이른다.

이러한 전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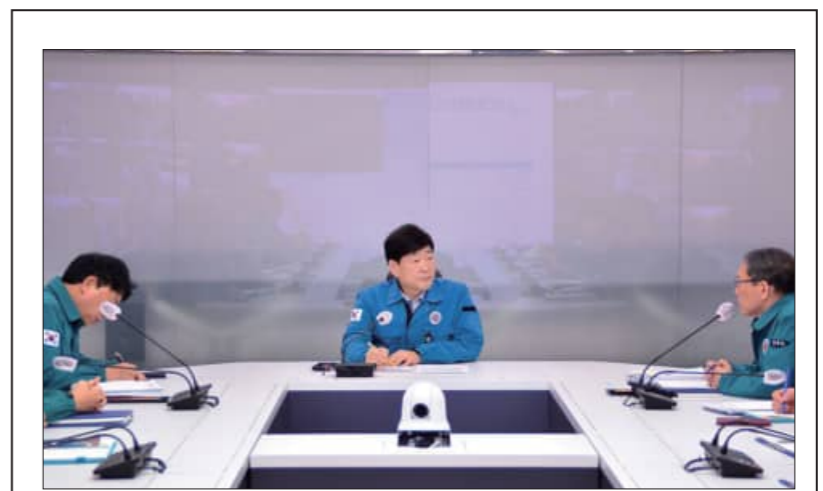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전주사랑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의 경우 캐시백을 기부하거나 판매액의 일부를 기부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도 한다.

지난해 이렇게 기부된 액수는 총 4250만 원(누적 195백만 원)으로, 기부금은 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약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비위축 및 불안한 정국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설 명절 대폭적인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해 새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사랑상품권 ‘네지카드’는 선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으로, 모바일 앱 또는 지점 금융기관에서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제52대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취임

### “강한 경제 바탕으로 시민이 부자 되는 전주 만들어 가겠다”

윤동욱 前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이 제52대 전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순창 출신인 윤 부시장은 지난 1997년 지방고시 2회에 합격한 후 공직 생활을 시작해 28여 년간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군산시 부시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기업유지지원실장, 도민안전실장 등 다양한 행정에 참여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지도역량을 겸비한 행정전문가로 정평이 나왔다.

윤 부시장은 이날 새해 군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전주시의회와 브리핑룸을 방문해 원활한 시정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면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천년 역사도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 천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큰 꿈을 그리고 있는 전주시의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돼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도시 한번 전라도의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8여 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 발전을 위해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모든 열정과 힘을 쏟겠다”면서 “전주시민과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이 부자 되는 강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주)올릭스 방문 강한 경제 위한 힘찬 새해 시작

### 혁신제품 및 우수제품 생산 기업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지역 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 격려

우범기 전주시장이 강한 경제 구현에 앞장서온 혁신기업을 방문하는 것으로 2025년 을사년 새해의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2일 군경묘지 참배를 마친 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주시의 경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에서 위치한 혁신기업인 ㈜올릭스를 방문했다.

이날 기업 현장 방문은 새해를 맞아 기업 현장을 찾아 강한 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우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 현황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회사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우 시장은 안중욱 ㈜올릭스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최근 비상시국과 내수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제조업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우 시장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중인 ‘기업 전담 매니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으며, 향후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이 이날 방문한 ㈜올릭스는 광센서와 LED, 항바이러스 조명 등 첨단 광반도체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선도 혁신기업으로,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에 모두 선정되는 등 전주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안중욱 ㈜올릭스 대표는 이날 “올릭스는 국내 최초 항바이러스 조명 및 LED 제품을 기반으로 광반도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전주시와 함께 지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우범기 전주시장이 강한 경제 구현에 앞장서온 혁신기업을 방문하는 것으로 2025년 을사년 새해의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왔으며, 앞으로도 전주시와 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올릭스와 같은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일 것”이

라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전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한 경제 도시로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 국공립어린이집 43곳으로 늘여

### 시, 에코시티데시앙 15블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된다.

전주시는 지난 2일 에코시티데시앙15블럭 아파트(덕진구 백석남로 133)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선정된 운영자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4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월 말까지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월 중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원아 모집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 설명회를 열고,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뿐만 아니라, 장기 임차를 통한 국공립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

는 아동에게 질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도,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족에 지방세 지원

전북자치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별례해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자와 유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감면되는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에 사망자 및 그 유족(부

모, 배우자, 자녀)에게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지원시설세이며, 덧붙여 유족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세 등 부과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시, 한파대비 취약계층 다각적 지원대책 추진

전주시가 최근 혼란스러운 정국과 연이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위태로운 지역경제를 시급히 지원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25년 새해에도 겨울철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동절기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 등과 연계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식사 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통해 모든 노인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먼저 시는 한파와 대설로 인한 취약 노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대설 대비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는 보호자와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긴급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SNS와 재난문자(CBS) 등을 활용한 대피소 운영 및 국민 행동 요령을 알리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372곳을 한파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한파에 취약한 노인들이 가까운 한파 쉼터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동시에 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취약 노인의 한파

# 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3억1300만원 투입

전주시가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주기 시작했다.

시는 올해 총 3억1300만 원을 투입해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정비와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19번째 해마다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유지·보수비용과 더불어 공동주택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70%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경과연수에 관계 없이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주소지에 따라 완산·덕진구청 건축과에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노후 정도와 단지 규모, 재난위험도, 재신청 여부,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임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충분한 예산과 사업량 확보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보건소·덕진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속 운영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는 새해 의존도 평가 시행 ▲1:1 전문상담서비스를 통한 심리적 지지 등의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보건소는 갈수록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해 흡연 청소년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 성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금연클리닉 등록 후 각각 3개월과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 물품도 제공하고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등 다양한 금연보조제 지급 ▲니코틴

의존도 평가 시행 ▲1:1 전문상담서비스를 통한 심리적 지지 등의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보건소는 갈수록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해 흡연 청소년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 성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금연클리닉 등록 후 각각 3개월과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 물품도 제공하고

/김영태 기자

대비 보호 대책을 바탕으로 모든 어른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상협,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건의

무안공항보다 300m 짧아... 안전성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해 반드시 필요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경태)는 지난 3일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강조하고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물류체계를 완성하여 새만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지역 상공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500m로 이는 국내 주요

공항 중 가장 짧은 규모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인천국제공항(4,000m), 김포국제공항(3,600m), 무안국제공항(2,800m), 군산공항(2,745m), 청주국제공항(2,744m), (예정)가덕도 신공항(3,500m), (예정)대구경북 신공항(3,500m)이며, 현재 전북도민이 사용중인 군산공항 보다 245m가 짧은 상황이다. 건의서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은 지난해 연말에 안타까운 항공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상 착륙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활주로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소화하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조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태 전북상협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5~2030년)에 활주로를 3,200m 규모로 확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준호 기자

## LH 전북본부, 송영환 신임 본부장 취임

“국가산단 조성 통해 전북도의 지속가능성 높여겠다”



송영환

한국도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는 지난 2일 송영환 신임 본부장(사진)이 취임하여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임 LH 전북지역본부장(만 54세)은 1996년에 입사하여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영사업본부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송 신임본부장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함께 소통에 능한 진화력을 바탕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덕장스타

일 리더로 정평이 나 있으며, 취임 당일에 전북본부를 직접 돌며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취임식을 대신했다. 송영환 본부장은 “도민의 희망을 키우는 LH 전북본부”를 2025년 목표로 설정하고 “도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주택과 도시를 건설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고품질주택을 건설하고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준호 기자

# “대대(大)의션”... 새해부터 전국 매머드급 단지 나온다

전국에서 올해 더샵 라비온드 등 14곳 매머드급 2,000가구 이상 단지 총 3만6892가구 분양 예정

올사년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2,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2,000가구 이상 규모로 분양하는 단지는 총 14곳이다. 전체 공급 가구수는 총 3만6892가구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1곳 ▲부산 2곳 ▲경남 1곳 ▲전북 1곳 ▲충북 1곳으로 나타났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지역에서 갖는 상징성은 남다르다. 지역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리딩 아파트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량도 많아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서울 강북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가구) 강남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윈베일리'(2,990가구), 인천 송도 대장주 '더샵 퍼스트파크'(2,624가구) 모두 2,000가구가 넘는 규모로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



▲전주더샵라비온드 조감도

지방도 마찬가지로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롯데캐슬카이저'(5,239가구)는 북구에서 가장 큰 규모 단지로 입주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북구에서 실거래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KB국민은행 12월 기준) 이처럼 매머드급 규모의 단지가 인기있는 이유는 다양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대단지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이 늘어나 주변 인프라 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거나 정비되는 경우가 많다. 늘어난 인

구로 교통망이 추가 되기도 한다. 또한 단지가 큰 만큼 단지 내 조경시설이 잘되어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한 경우가 많다. 아파트 공용 관리비도 나누는 세대수가 많아 적게 나오는 편이다. 때문에 올해 분양을 앞둔 매머드급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매머드급 단지 첫 시작 분양은 전북 전주시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라비온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2,226가구

규모로 1,42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업계 전문가는 “2,000가구 이상 규모가 들어서려면 부지가 상당히 커야하기 때문에 부지 한정성으로 공급이 많지 않아 희소성까지 더해져 가치가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지가 치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라면 매머드급 단지를 노려보면 좋다”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전북자치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3천억원 본격 지원 나서

기업별 융자한도액 확대, 시설자금 15억, 운전자금 5억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기업지원 접근성 강화

전북자치도는 오늘부터 3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분야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천2백억) ▲벤처기업 육성자금(2백억) ▲경영안정자금(1천6백억)으로 나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별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기존 10억 원에서 15억으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존 3억에서 5억 원(우대기업은 7억)으로 상향 조정돼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별 1분기 신청은 다음과 같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3일부터 17일까지, 경영안정자금은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만약 분기 내 자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익월에 추가 접수를 받아 필요한 기업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기업애호소(063-280-3228) 또는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에 문의하면 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 국민연금 “깊은애도와위로”...여객기 사고유가족지원

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 기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강흥구)은 지난 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에 동참했다. 공단은 지난 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에 참여하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여구 복지이사는 “여객기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다”라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강흥구)은 지난 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에 동참했다. 공단은 지난 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에 참여하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여구 복지이사는 “여객기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다”라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위해 산·학·연 머리 맞대

핵심 권역별 개발 현황 청취 사업활성화 구체적 실천 방안 논의...전문가들, 긍정적 관심 표명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3일 새만금 지역의 첫 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비전에 대해 논의된 이번 회의는 새만금지역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법정계획인 스마트 도시계획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그간의 새만금 사업의 경과와 핵심 권역별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접목, 기업 참여 등의 구체적인 실

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공공기관-민간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히, 새만금 지역이 투자유치가 활발하고 공항-항만 등 인프라 수준이 우수하여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산업단지 등을 도입하기 적합한 환경이라면서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첨단산업과 혁신적인 기술이 결합한 도시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81명 출국금지 요청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고액 체납자 18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구립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72억원에 달하며, 출국금지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시군 요청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기존 출국금지자의 연장 대상이다.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국외 이주 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기존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장 필요성 등도 출국금지 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체

납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의 실의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6백만원의 은닉재산을 추가 압류했으며 이 성과로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준호 기자

# '전북 농촌유학' 학령인구 소멸 위기 넘는다

지난해 2024년 전북농촌유학 참여자 만족도 높아...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추진 중인 '전북 농촌유학'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농촌유학 참여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학생 가족은 물론이고 재학생 가족까지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4~17일 진행된 이 조사에는 유학생 학부모 48명, 유학생 47명, 재학생 학부모 56명, 재학생 118명 등 총 269명이 참여했다.

유학생 학부모들은 응답자 전원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 97.9% ▲지인들에게 추천 의사 97.9% ▲농촌유학 참여 목적도 달성 91.7% ▲재참여 의사 89.6%로 조사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농촌유학에 참여한 이유로는 '자녀에게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녀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길 희망해서' 22.9%,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안정'

4.2% 등으로 조사됐다. 유학생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 78.7% ▲학교생활 만족도 91.5% ▲교우 만족도 74.5% ▲친구들에게 추천할 의향 68.1% 등으로 집계됐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의 농촌

유학 운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8.6%, 농촌유학을 계속 운영했다면 좋겠다는 응답이 83.9%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유학 운영이 지속되길 바라는 이유로는 ▲아이와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많아지기 때문(48.2%) ▲학생 수 증가로 학교가 활성화(35.7%) ▲학교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운영(10.7%) 등을 꼽았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전북 농촌유학이 단순히 도농 교류의 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거주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북 농촌유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양오봉 총장, 발전기금 1천만 원

대학과 대학 구성원들 더 큰 발전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우리 전북대학교와 구성원 모두 힘찬 도약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학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양오봉 총장은 취임 이후 매년 1천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양 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해 첫 기부자로 나서며 대학의 도약을 향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지난 2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의 뜻을 기리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양오봉 총장은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힘찬 기운이 깃든 해로 이 기운을 받아 우리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지역과 국가를 선도하는 중심 대학으로 우뚝 서는 데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안국찬 대외·취업부총장은 "양 총장님의 기부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기탁 기금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생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학교, 202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4.51대 1'

일반학생 전형에서 치의예과 9.63대 1로 경쟁률 최고 기록... 수능 성적 100% 선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3일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299명 모집에 5,858명이 지원해 4.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20명을 선발하는 가군에는 모두 2,886명이 지원해 5.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779명을 모집하는 나군은 2,972명이 지원해 3.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별로는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5.56대 1, 지역인재전형(2유형)은 10.4대

1, 농어촌학생전형은 7대 1,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14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에서는 일반학생 전형 4.19대 1, 지역인재 2유형(전북권) 3.34대 1, 지역인재기회균형 전형(호남권) 4.25대 1, 일반학생 전형(예체능) 3.77대 1, 농어촌학생 전형 10대 1, 기회균형선발 전형 11대 1 등이었다.

정원 증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의예과 나군 일반학생 전형에서 33명 모집

에 142명이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인재 2유형(전북권)은 38명 모집에 127명이 지원해 3.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인재기회균형 전형(호남권)에서는 4명 모집에 17명이 지원해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가군 일반전형 치의예과로, 8명 모집에 77명이 지원해 9.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방법은 예체능을 제외하고 가, 나군 모두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예

체능의 경우 수능, 실기고사 성적이 반영된다. 한학도 전형(농생대 생명자원융합학과) 및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수시모집과 동일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반영된다.

수능성적은 국어 및 수학영역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탐구영역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가산점으로 반영한다.

/최성민 기자

## 전북서울·전주장학숙 2025년 입사생 모집

내달 3일까지 240명 모집... 입사비 7만 원 · 매월 15만 원 납부 시 편의시설 모두 이용

전북자치도장학숙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선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신규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240명(서울 120명, 전주 120명)으로 지난 3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를 받아 2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장학숙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며 전주 장학숙은 전북자치도 소재 대학의 신입

생과 재학생으로 대상자의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대상자 본인이 도내 소재 고교를 졸업했고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도인 학생이다.

성적 기준은 신입생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교성적의 백분위 평균이 서울장학숙은 80점 이상, 전주 장학숙은 60점 이상, 예체능 계열은 40점 이상, 재학생은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이 B학점(전주 C+ 학점) 이상이며 성적 50%, 생활정도 50%를 반영해 최종 선

발한다. 원서접수는 전북자치도 서울·전주장학숙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다.

입사생은 입사비 7만원과 매월 부담금 15만원만 납부하면 1일 3식 식사제공, 숙실은 2인 1실, 독서실, 북카페, 헬스장, 휴게실 등 장학숙의 편의시설을 추가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장학숙(02-580-6600), 전주장학숙(063-240-4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가정영유아학교 시범교육청 특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아 정서·심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기기 사용 연령 하향화 등으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증가하면서, 조기 치료 지원을 통해 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기관 및 희망하는 기관 및 유아를 대상으로 오는 2월까지 운영되는 이 사업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과 개별 유아 맞춤형 치료 지원으로 진행된다.

기관으로 찾아가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 ▲스크리닝 검사 ▲그림해석 및 피드백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안정적인 정서·심리 발달을 지원한다.

개별 유아 맞춤형 치료 지원은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추천하여 전문상담 치료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가 정서·심리 지원이 필

요하다고 요청 시, 개별 유아 맞춤형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30개 기관, 100개 학급, 1,288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범 과장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태어난 유아들이 정서·심리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업을 통해 유아가 안정적인 정서·심리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주대,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종합실적평가 최고 등급

66개교 중 최고 등급 'A등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교육부 지방대학활성화사업 2024년 연차평가 전국 최고 등급에 이어 종합실적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종합평가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66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지자체·대학 간 협업·소통 실

적, 특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실적, RISE 연계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했다.

전주대는 ▲지자체·대학 간 협업 및 소통 구조가 잘 구축되어 있는 점 ▲모집단위 광역화로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고 3개의 특성화 학부를 신설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점 ▲겸직교수 제도, 교수지원 통합관리, 업적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성화를 위한 교원을 확보하고 지원한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점 ▲타 정부 재정지원사업 내용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지역수요 맞춤형 특성과 인재육성을 위해 학과 간 칸막이를 허무는 마이크로전공 체제로 전환하고 관련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최성민 기자

다음에서 전북타임스신문을 검색 해 보세요



**동행이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랭킹 2020 45위, 2021년 27위, 2022년 32위, 2023년 31위, 2024년 30위 선정)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 |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HIVE 1유형) 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2유형)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운영대학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고속권 일학습병행(P-TECH) 운영대학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운영대학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운영대학

시행과 도전과 창조에 대학  
**군장대학교**  
KUNJANG UNIVERSITY COLLEGE  
주관 | 혁신지원사업단 후원 | 0249 440 1111



# 고창군, 농민공익수당 확대·지급

##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 추진...예산 72억4800만원 편성

고창군이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지급을 추진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북 최초로 고창군에서 시행됐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민 단체들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업인 단위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전북도와 군은 이를 검토한 결과 오

구를 수용해 추진하기로 결정, 공익수당 예산 72억4800만원을 편성했다.

개편안은 기존 1농가당 60만원이던 지원을 농민 1명당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는 현행대로 60만원을 지급하고, 2인 이상 가구에는 구성원 농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가구내 인원이 총 4명일 경우 총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식이다.

이 개편안으로 여성농은 물론 부모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귀농·귀촌의 유인 효과를 높이

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돼, 귀농·귀촌에 힘쓰는 군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 시행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전에 이러한 개편안을 이장회 및 각종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내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에게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의 농업·농촌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농민 공익수당의 확대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해소와 군민의 실질 소득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정성주 김제시장, “더 특별한 기회도시 만들 것”

## 민선 8기 3주년...시정방향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해

정성주 김제시장이 “2025년 김제를 더 특별한 기회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3일 김제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푸른 희망을 가득 품은 2025년을 시민 모두가 하나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는 김제 최초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 망해사 국가자연유산 명승지정, 만경7공구 방수제 김제시 관할 결정, 김제시공회요소 설립 창립총회,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해 냈다.

특히, 2025년은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성장의 과실이 시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시정방향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하고 그간 쌓아 온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정의 완성도를 높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비상하



지난 3일 김제시에 따르면 정성주 김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하나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 시장은 “시민여러분의 끊임 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푸른색처럼 유연하고 지혜롭게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마실축제, 도 최우수 축제...도비 2억 2천만원 확보

## 짜임새 있는 구성·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방문객 만족도 높여...오는 5월 12회 맞이 축제 개최

부안군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도비 2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제11회 부안마실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정의 달을 맞아 부안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봄 소풍을 떠나듯 추억을 선물하는 축제를 연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축제 장소를 해돋이마루로 옮겨 정원이라는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배치 등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청차 효도 밥상, 마마스엔파파스 뮤직 페스티벌, 황금 동종을 선물합니다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최우수 축



제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매력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며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이 함께 상생하는 축제를 통해 최우수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8억 4500만원 투입 개사육농장 전·폐업 지원

## 심군수, “개식육 종식 기한 내 완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할 것”

고창군이 새해 8억4500만원을 투입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전·폐업 지원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제정된 ‘개식육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는 금치 시기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사육 농장주에 대한 전·폐업 지원 금액은 마리당 최대 60만이며 폐업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건축비, 가족분뇨비, 농지비 등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가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은 감정평가로 산출해

지원하며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개식육 종식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식육종식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구성해 철거하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정화영 신임 부안군 부군수 취임 풍부한 경험·탁월한 업무추진력 민선 8기 군정비전 실현한다

정화영 신임 부안군 부군수가 지난 2일 직원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정화영 부군수는 진안군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지난 2005년 전라북도도 전임해 자치행정과 인재양성팀장,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장,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과장,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부안군 부군수로 부임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까지 순창군 부군수로 재직된 풍부한 현장경험과 탁월한 업무추진력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아 온 정화영 부군수가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해 부안군 군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화영 부군수는 취임 인사를 통해 “민선 8기 부안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권익현 군수님을 보필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세바퀴 경제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농업부서, 업무연찬서 농업 현장 문제점 공유

고창군 농업부서(농어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등)들이 새해 벽두부터 업무연찬을 갖고 지역농업의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농업부서 연찬회’는 정재민 농어촌산업국장 주재로 부서별 팀장급 이상 20여명이 함께했다.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기술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한 농업 현장 역량 강화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으

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 ▲정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 ▲고창쌀 브랜드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생물 농업 육성 ▲농기계 사용 전 읍면 순회수리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재민 농어촌산업국장은 “두 부서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경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료,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업 실적을 평가

해 우수지자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급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등 총 13개 지표의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합리적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해 수급자의 건강관리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LH참여...사업 추진 탄력

고창군이 지난해 말 LH(한국도주택공사)로부터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경영투자심사(경투심)와 사업참여 알리를 통보 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LH참여에 따른 실무협약이 완료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감을 더할 수 있게 됐다.

LH공사는 주택경투심(본심)을 오는 3월까지 완료 후 고창군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부문에 대해 LH공사와 공동시행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LH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사업성(수익률)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복합터미널시설과 공동주택을 분리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됐다.

당초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 사업계획 고시 당시,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기능을 포함 18층 높이의 주거복합

건물을 건축하려 했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는 지난 2022년 12월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다.

총사업비는 국비 등 1777억원으로 쇠락해가는 터미널 주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의 정주여건 마련, 고창의 유기농 신성장 산업에 중점을 뒀다.

고창군은 오는 2026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위해 공공건축심의와 기존터미널 이전을 위해 임시터미널 조성사업 설계를 추진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고창군의 중심지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고창군의 랜드마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전북대학교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신입생 모집

부안군은 미래농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5학년도 전북대학교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학과는 지역의 농업 및 산업 발전을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전북대학교,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부안군은 학생들의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는 총 120학점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예코농산업벤처산업기사, 사회적 자유농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5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총 30명이며 지원자격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전북대학교와 3차 운영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농·수산업 및 식품 산업체 재직자 또는 농·수산업 등 1차산업 종사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나 부안군 농촌협력과 농촌협력팀(063-580-4892), 전북대학교 예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사무실(063-581-2562)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사랑상품권, 1월 구매해도 상향·설맞이 이벤트 시행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비상시국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부여하고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1월 한달 간 김제사랑상품권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3일 김제사랑상품권의 1월 구매할도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하며 설맞이 페이백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설맞이 페이백 이벤트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김제사랑카드 1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추가할인 해주는 것으로, 구매시 10% 선타임을 포함해 총 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할인 금액은 오는 2월 말 김제사랑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지만 김제사랑상품권의 구매할도 100만원은 1월 한 달간 운영되며 이같이 상품권의 다양한 할인 혜택은 시민의 가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은 고흥사랑페이 앱 또는 관내 농·축협 등 39개 판매대행점에서 가능하며, 음식점, 슈퍼, 주유소 등 약 4,000개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고흥사랑페이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2025년도 가축 방역 업무 지원 공수의 5명 위촉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예방, 전염병 발생 시 의료지원 등 가축방역 업무를 위해 지난 2일 관내 개업 수의사 5명을 2025년도 공수의로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 의사는 채기석 연합동물병원장, 홍성진 닥터홍동물병원장, 이기봉 초원동물병원장, 김락균 새만금동물병원장, 김태홍 바른동물병원장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올해 1년간 담당 지역의 소, 돼지, 가금 등 동물 진료, 농장 환경 검사, 구제역·럼프스킨 예방접종, 브루셀라 및 결핵 혈청검사 채혈 등 부안군 축산과 가축방역 업무부서와 협력해 관내 축산 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권익현 군수는 “전국적으로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부안도 지난해 12월 AI가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대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공수 의들은 현장 일선 지도자로서 농장 점검 방문 시 기본방역수칙을 농가에 지도하고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부안 지역 수호의 사명을 갖고 방역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남원, 상수도 요금 인상 한시적 유예

민생경제 고려한 결단, 상수도 요금 동결로 시민 부담 최소화  
다자녀·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실질적 혜택 제공...감면 제도 적극 홍보

남원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5년부터 5년간 추진하기로 했던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지리적·지역적 특성으로 상수도 공급에 큰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010년 이후 15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도내 시 평균 65.86%에 현저히 못 미치는 37% 수준이었다.

이에, 최근 누적된 손실과 경영수지 악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수도 요금을 60%까지 현실화하는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생안전 관련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하며, 각 부서에 서민 생활 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남원

시는 2025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2025년도 상수도요금은 2024년도 요율을 적용하기로 전격 결정했으며 유예기간은 2026년도 1월 고지분까지이다.

남원시는 이번 요금 인상 유예와 함께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감면 제도로는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3차원에서 2차녀로 확대 ▲누수 감면 ▲취약계층 지원 ▲모범·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스포츠마케팅 지난해 52억 경제효과 창출

49개 대회 13만여 명 방문...유소년 대회 전략적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순창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52억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지난해 순창군은 국제대회 3개, 전국 대회 38개, 도 대회 8개 등 총 49개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여기에 전지훈련 50개 팀까지 더해져 연인원 13만 1,827명이 순창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소년 대회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2023년 22개 대회에서 2024년 25개 대회로 확대했다. 이는 학부모 등 동반 방문객이 많은 유소년 대회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유치로,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스포츠 국제화 전략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필리핀, 동티모르, 대만 등 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순창형 스포츠테니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순창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국제-전국 등 49개 대회를 유치, 52억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2024 지방의교 우수사례'와 '2024 공공의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각각 우수상과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도비 확보액이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4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나 군 재정 부담을 줄이며 질 높은 스포츠 마케팅을 실현했으며,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로 얻은 직접 경제효과 52억 원에 더해 강진산 군립공원, 힐링스파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로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창출했다.

아울러, 군은 올해 연초부터 실내다목적구장과 팔각다용도경기장을 활용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소년 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 민생안전지원금 인당 30만원 지급...내수 활성화 도모

완주군이 설 명절 전에 전체 군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완주군은 경기체제로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30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전지원금의 재원은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 등 재정 안정화를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총당한다.

민생안전지원금은 설 전에 완주사랑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으로, 사용기한은 6월까지로 한정한다.

군은 민생안전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 의회와 협력해 지원조례도 제정하고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완주사랑상품권 1월 발행액을 25억

으로 증가 발행하고, 추가 캐시백 사업도 진행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시장에서 완주사랑상품권을 이용시 추가 캐시백 5%를 지원한다.

또한 '완주물'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전체상품 10% 할인 및 입점사 할인액을 보전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도 빠른 시일에 시작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농업기술보급사업 45억 투입...31일까지 접수

남원시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5년 농업기술 보급사업 45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로, 신청대상은 남원시 관내 농업인, 생산자 조직 단체 등으로 공고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원부 상 경영주 명의인 자 등이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읍·면 농민상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주요 사업으로 인력육성 분야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농식품 산업 분야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시범, 농업기계 분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원푸드 분야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화 기반조성 스마트농업 분야 스마트팜 확대 보급사업, 식량작물 분야 질소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 과학농업 분야 실증연구 확대 및 심화연구 시범사업, 과수



남원시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5년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한다.

특작 분야 최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 등 45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요령 등 사전교육을 추진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MOU

남원의료원과 협약...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한 노후



남원시(시장:최경식)는 지난 3일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원의료원(원장:오진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다져 다양한 지역자원 돌봄 연계와 재택의료 서비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도

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거동이 불편한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고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게 된다.

남원시는 시범사업의 수행에 공공의료원의 개입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응급체계 구축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고산성모의원 장기요양 재택의료 협약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고산성모의원(대표 이원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고산성모의원 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기요양 재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원이

나 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진료·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업무협약으로 고산성모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가정을 방문해 의로서비스 및 지역자원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고산성모의원으로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과 진료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 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무안 공학에 추어탕 기부

남원 미꾸리추어탕 협동조합(대표 김병섭)은 지난 3일, 최근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로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무안 공학에 방문, 유족들을 위해 남원 미꾸리 추어탕 800인분(시가 500만원 상당)을 기부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병섭 남원 미꾸리 추어탕 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한 대한적십자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정하복 회장, 박영수 총무국장, 전국협의회 강형숙 부회장 등과 3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전북 대한적십자사회는 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 유족들에게 배식을 진행하는 등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병섭 남원미꾸리 추어탕 협동조합 대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대참사가 일어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비통함에 절망하고 계속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따뜻한 추어탕을 전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하복 대한적십자사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장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인도주의 현장에서 구호 활동하면서 현신하는 것 같아 감동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20만원 상품권 지원

순창군이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를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1955년생까지의 70세 이상 군민으로, 운전면허증(원동기 포함)을 소지한 사람이다. 군은 올해 6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운전면허 반납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20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카드형이나 모바일 중 선택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반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사랑상품권 설 명절맞이 구매·적립 한도 상향 운영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소비심리회 회백하고 설 명절 대목 기간 동안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립한도도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류 상품권(1만 원권)은 이미 판매가 중단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으며, 현재는 모바일·카드 상품권만 구입 가능하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CHAK)을 통해 다운로드와 회원가입 수 있다. 또한,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의 생활인 방식에서 후캐시백 방식으로 변경됐다. 후캐시백 방식은 상품권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상품권 사용 시마다 사용 금액의 10%가 적립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이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상품권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 마을버스운전원 64명 임용 연내 완전공영화 목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마을버스운전원 64명을 임용, 안정적인 노선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설관리공단은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마을버스운전원에 대한 신규 임용식을 열었다.

임용식에서는 채용된 운전원 6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전철안전 및 청렴서약 결의'에 이어 교통문화연수원 전임강사를 초빙해 전철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완주군 공영마을버스는 총 28개 노선에 마을버스 23대를 투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3개 읍면을 모두 연결하는 완전공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은 마을공영버스의 전문관리를 위해 운영 전반을 완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월 중에는 신규채용 공고를 통해 10여 명을 추가로 선발해 상반기 내 심례, 봉돈, 윤진 전체 구간을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이희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운전원 구인이 심해 외국 인까지 채용하는 지역도 있지만 완주군은 처우 개선으로 일반직 기술 7급으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질환 특수건강검진 지원

완주군이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취약한 질환인 근골격, 골절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이다. 농작업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 관리 예방교육 및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380명으로 51세~70세(1955.1.1.~1974.12.31) 여성농

업인 중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검진 비용은 1인당 22만 원으로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이며,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1월 중 선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검진 일정은 읍·면별 대상자가 확정되면 별도 통보해 진행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건강에 취약한 여성농업인들의 주기적인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장수군, 10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신청 접수시 10% 감면

장수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기간동안 장수군에 등록된 차량 일 경우 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납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돼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며 유의해야 한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므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RED FOOD FESTIVAL’, 최우수축제 선정

## 장수군 ‘RED FOOD FESTIVAL’, 3년 연속 도 시군 대표 최우수축제 영예

장수군 대표축제 ‘RED FOOD FESTIVAL(제18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대표 축제 육성사업 선정심사에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최우수축제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전북특자도에서 2024년도 축제 현장평가와 2025년 축제 계획,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장수 ‘RED FOOD FESTIVAL’은 지난해 기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축제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며 장수한우와 사과의 전통적인 인기애 ‘레드푸드’라는 혁신적인 콘텐츠를 더해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현대적 트

랜드와의 조화를 이뤄 축제의 경쟁력을 높였다.

지난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된 장수 RED FOOD FESTIVAL은 ‘빨간 맛으로의 초대’라는 슬로건 아래 레드푸드존, 레드푸드쇼, 레드푸드를 활용한 가족 요리대전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방문객들에게 오감만족의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장수한우를 맛볼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한우 판매장과 한우마당, 장수사과를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사과마당은 물론 온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과볼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붉은 빛 레드

의 향연’을 선사하며 축제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도 지정돼 2년간 문체부로부터 지정평가, 빅데이터분석, 축제이카데미, 컨설팅 등을 지원받으며 오는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축제 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해 장수 ‘RED FOOD FESTIVAL’은 새로운 명칭과 함께 레드푸드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 세계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제30대 이진관 부군수 취임

#### 문화관광산업 행정력 기대...천만 관광 유치 큰 역할도



이진관 임실부군수

지난 2일 취임했다.

신임 이 부군수는 임실군의 핵심 아젠다인 천만관광 임실 실현과 2025 임실방문의 해에 맞춰 임실군의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요 기관 방문과 조직 현황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 임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부군수는 “부군수로서 임실군에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임실군 역점사업

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실군 신덕면 출신인 이진관 부군수는 신흥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및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1994년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해, 도 감사관 회계감사팀장, 감사총괄팀장으로 일하며 우수한 행정 추진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시기관으로 승진해 도 기획조정실 법무행정과장,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쳐 제30대 임실군 부군수로 부임하게 됐다.

이진관 부군수는 평소 독보적인 전문성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겸비한 행정가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안목과 추진력이 높은 관광벨트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실=정혜영 기자

# 임실 찾은 관광객 100만명 ‘사계절 축제 도시’ 우뚝

## 옥정호 빛꽃축제부터 산타축제까지, 축제 기간 관광객만 97만여명...임실 방문의해 맞아 홍보 주력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계절 축제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봄부터 겨울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개최된 축제 기간에만 임실을 찾은 관광객은 97만여명으로 1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 처음 개최된 옥정호 출렁다리와 만나는 ‘2024 임실 옥정호 빛꽃 축제’는 2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봄에 만나는 붐어섬, 블라썸(blossom)’이라는 주제로 옥정호 출렁다리와 앞 특설 행사장에서 열린 2024 임실 옥정호 빛꽃 축제는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제39회 의견 문화제와 함께하는 2024 임실N펫스타’는 비가 내린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한 반려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5만여명의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을 기록했다.

임실군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아쿠아 페스티벌’은 총 9천4백여명의 유료 입장객과 함께 매출액은 1억5천여만원을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입장객 중 70%는 관외 거주자로 집계돼 임실군 관광 홍보에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해 봄부터 겨울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개최된 축제 기간에만 임실을 찾은 관광객은 97만여명으로 ‘사계절 축제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휘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10주년 임실N치즈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58만여명이 찾으며, 명블러진 화제성을 재입증했다.

임실산타축제는 5일간 31만85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임실군 생활 인구는 2018년에 498만명에서 2023년 853만명으로 71%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현재 830만명, 산타축제가 열린 12월까지 합하면 890만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2025년은 임실 방문의 해인 만

큼 더욱 공격적인 관광 홍보와 더 알찬 축제, 관광지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목표했던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각오다.

심 민 군수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사계절 축제 도시 임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됐다”며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로서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축제 등을 더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정혜영 기자



###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호평 속 올해도 운영

진안군이 2025년도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처리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불법소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산발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 파쇄 영농부산물물은 퇴비화해 ‘자연순환 생명농업’을 실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됐으며 신청이 쇄도해 파쇄지원단의 작업량이 폭증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80농가 8423ha 영농부산물을 파쇄

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파쇄 규모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불법소각에 따른 산발 발생 피해를 65% 줄이고 미세먼지도 최대 24% 저감한 효과를 냈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산발예방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 마을축제조직위원회, ‘제18회 마을축제’ 참여 대상 모집

진안군 마을축제조직위원회가 이달 17일까지 ‘제18회 진안군마을축제’에 참여할 마을을 모집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진안군 마을축제는 마을과 주민이 주인공이 돼 농촌과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행사로 군내 15가구 이상의 마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을축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축제 방향을 마을 농산물 판매 등의 도농교류가 가능하고 타 마을과 적극적인 교류가 가능한 마을 등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마을축제조직위원회(063-433-5445)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31개 마을과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특색을 담은 이야기와 함께 축제를 개최해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장이 되고 있다.

마을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마을축제 사업을 통해 더욱더 많은 마을이 참여해 주민 역량강화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 과수·채소·스마트팜·화훼 분야 19개 사업에 15억 7천여만 원 투입...농업경쟁력 강화 기대

무주군이 2025년도 소득작목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사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 등을 농가에 보급하고 그 효과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확인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은 올해 국비 3억 6천만 원 포함, 총 15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과수와 채소, 스마트팜·화훼 분야에서 총 19개 사업(870ha)을 추진한다.

과수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사과 원 저온 피해경감 통로형 운풍 공급

기술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광망 지원 등이 있으며 채소 분야에서는 ▲수출형 중일성 딸기(여름 딸기) 안정생산 냉방 기술 시범을 비롯한 ▲고랭지 비가림 업체류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 ▲고랭지 흑미수박 특화단지 육성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팜·화훼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 등 소득작목 전 분야에 걸쳐 신기술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사업 등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농업 분야 인재 발굴 및

청년농 육성,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신청 자격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오는 17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과수와 채소, 스마트팜, 화훼 등 소득작목이 무주농업의 숨은 잠재력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무주군, 주민 맞춤형 건강 정보지 제작·배부

무주군이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생활백서, 건강+ 더하기(이하 건강 더하기)를 제작해 군정을 비롯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경로당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건강 더하기’는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 등을 담았다.

‘모두에게 건강을’ 부분에서는 ▲스마트예방 건강 걷기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금연클리닉 ▲혈관튼튼수요일 ▲고혈압·당뇨환자 안전검사 ▲혈압·혈당기 무료 대어 ▲감염 예방수칙 ▲췌장암 조기 진단 ▲예방접종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르신께 활력을’ 부분에는 ▲무료 결핵 검사와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노인 틀니 지원 ▲치매 검사와 진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음에 행복을’ 부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알코올중독예방 ▲정신질환 관리 ▲자살 위험신호 ▲생명지킴이 관련 내용이, ‘아이에게 희망을’ 부분에서는 ▲임신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 ▲산모 교통비 지원 등 알아두면 득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이승하 보건행정과장은 “건강 더하기는 다양한 건강정보 이용과 프로그램 동참, 각종 지원 사업 활용에 관한 방법과 혜택 등을 정리한 정보지”라며 “자신에게 맞는 정보와 지원 내용들이 있는지 꼭 살펴서 도움도 받고 건강한 한 해도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 진안군, 고품질 유용 미생물 6종 농가에 무상 공급

진안군이 올해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 고품질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 균종은 복합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미생물 6종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미생물 배양센터 환경개선 공사 및 별도 배양시스템 도입을 완료해 공급 미생물의 질을 높였다.

미생물 공급 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촌신민, 영농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농 진안군민까지 포함된다.

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군민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소지하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방문해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진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공급해오

고 있으며 2024년에는 농업 및 축산 전용 미생물 374톤을 공급하는 등 농축산 농가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고품질 미생물이 농작물의 생육 촉진과 품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적인 농업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농가소득 안정 증점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장수군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총 7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수 농업환경에 적합한 주요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해 농가소득 안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장수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군

은 교육참가자들에게 2025년도 농업 기술 시범사업 일정 안내와 당면 영농 시책이 포함된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유)전주환경, 1천만 원 성금으로 김제에 따뜻한 나눔 전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유)전주환경(대표 박몽선)이 지난 3일,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박몽선 대표는 “추운 겨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유)전주환경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 이러한 나눔이 김제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성공적인 진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는 현재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다양한 단체와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익산 춘포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에도...성금 기탁**

익산시 춘포면 행정복지센터는 춘포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일동(회장 최동욱)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며 1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춘포초등학교 학생들은 공연을 선보이는 등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경로당 어른들은 손주 같은 이들의 재롱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조금씩 용돈을 쥐여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 용돈을 뜻깊게 쓰고자 고민하다 마음을 모아 기부를 결정했다.

기탁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역 어르신들 위해 공연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일어난 항공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주 코튼클럽, 추동의류 1839점 기탁**

전주시청 방문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5800만원 상당 겨울나기 의류 전달

전주 코튼클럽(주)·(주)앤씨어패럴(대표이사 이운영)은 지난 3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추동의류 1839점(58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된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운영 코튼클럽(주) 대표이사는 “추운 겨울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 코튼클럽(주)·(주)앤씨어패럴은 지난 3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추동의류 1839점을 전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전주 코튼클럽(주)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코튼클럽(주)·(주)앤씨어패럴은 덕진구 팔복동 소재 언더웨어, 이지웨어 등 생산 제조업체이다.

매년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군산시, 6.25참전유공자 화랑무공훈장증 전수**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통해 **故박종설·故임복기 씨 유가족에 기념패 전달**

군산시는 지난 3일 6.25 참전유공자 **故박종설, 故임복기**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증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식은 국방부 6.25 무공훈장 찾기주기 조사단에서 추진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의 하나다.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은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전수식을 개최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

리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故 박종설** 및 **故 임복기**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유가족에게 훈장증, 훈장, 기념패를 전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현재까지 ‘6.25 전쟁 무



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통해, 다. 19명의 유공자에게 훈장을 전수했

/군산=지송길 기자



**(주)디에이치 글로벌 대표, 부안군에 4025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일 생활기전 전문업체 (주)디에이치 글로벌 이정권 대표가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25만원 등 총 4025만원을 기탁하며 남다른 고향사랑의 열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정권 대표는 이날 기탁으로 3년 연속 제1호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와 3년 연속 제1호 장학금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정권 대표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00만원씩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 금액을 기부한데 이어 기부금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 첫해인 올해에도 최고 한도 금액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기부금 한도 상향 이후 첫 사례로 지역사회 나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정권 대표는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장수군 공직자, 희망나눔 성금 1,411만원 모금**

장수군이 지난 2일 사무실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 성금 기탁식을 열고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갔다.

장수군 공직자들은 해마다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14명이 참여해 1411만원을 모금했다.

모금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수군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해 준 장수군 공

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장수를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희망2025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복지과 또는 지역방송사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주)씨케이안전유리, 남원시에 성금 1천만원 기부**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31일 희망2025나눔 캠페인 기간 중 (주)씨케이안전유리(대표 최호립)에서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씨케이안전유리는 2020년 설립 후 남원시 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축해 2021년부터 가동 중인 안전 강화 유리 제조 업체이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남원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의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호립 대표는 “남원 시민의 성원 속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며 소중한 성금을 기부해 주신 (주)씨케이안전유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 정읍시에 성금 500만원·백미 50포 나눔**

정읍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대표 대원 주지스님)는 지난 3일 성금 500만원과 백미(10kg) 50포를 정읍시에 기탁했다. 같은 날 (주)가나모 지이상공사(대표 최정환)도 성금 15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내장사가 기탁한 백미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내장사 총도감 무성스님은 “작은 정성들이 하나하나 모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나눔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군 화산면, 홀몸어르신 100세대에 새해맞이 떡국떡 전달해**

완주군 화산면이 지난 2일 새해를 맞아 홀몸어르신 및 취약계층이 희망찬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화산면 새마을부녀연합회 회원들은 ‘2024년 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떡국떡 3kg, 100세트를 준비해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에게 전달했다.

강은아 부녀회장은 “새해를 따뜻한 이웃나눔으로 시작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마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송중택 화산면장은 “2025년을 뜻깊은 봉사활동으로 따뜻하게 열어주는 화산면 부녀회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소외 이웃이 없는 화산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근기자

**겨울철 한파대비 행동요령**



- 노약자 등 아로할동 자제
- 동상 시 비비지 말고 온수에 30분 담근 후 즉시 병원 이동



- 출·퇴근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기



-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 헌뜻으로 보존
- 잠시간 외출 시 온수 약하게 틀기



- 스노체인, 염화칼슘 등 자동차 필동용품 준비
- 부동액 등 미리 점검

〈一事一言〉



### 1988년의 육사가 커서 2024년 내란이 되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30년 넘게 한국의 군사 문제를 관찰해 온 필자이지만 12·3 내란 사태를 보면서 큰 의문이 하나 생겼다. 왜 육사 47~50기 출신들이 이번 내란의 주축인가, 라는 의문이다. 단순히 그 기수들이 군의 고위 장성이어서 내란의 주축이 되었다는 설명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절정기였던 1987년 육사에 입교한 47기로부터 그 이후 3개 기수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남달라야 한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48기들은 단연 눈에 띄는 존재다. 이 기수에는 이미 내란 중요 행위 가담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뿐만 아니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가 취재한 바로는 계엄이 선포되던 날 육사에서는 누군가의 지시로 생도들의 계엄 선포 지지 퍼레이드를 조직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5·16 직후 박정희 쿠데타를 육사 생도들이 지지하는 시가 행진처럼 말이다. 이 외 다수의 단순 가담자를 포괄하는 이 기수는 사실상 냉전 시대의 군정으로 복귀하겠다는 위헌·위법한 계엄 사태에 체질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어야 정상이다. 이런 상식과는 달리 이 기수들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행태는 권력에 무비판적인 추종과 출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민병단(육사 15기)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궁지에 몰린 전두환 대통령의 병력 출동 준비 명령을 거부했다. 최근 한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계엄을 가정한 육군 본부의 작전명령에 대해 "위법한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며 버티는 바람에 계엄에 난란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민 사령관은 만일 전두환이 계엄 선포를 강행하면 자신 휘하의 707대대를 청와대에 보내 전두환을 생포하고 과도정부를 선포하여 평화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후 민간에 정부를 이양할 계획까지 짰다고 했다. 이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87년에 한국의 명예로운 민주혁명을 이루어냈다. 지금의 육사 48기가 하지 않은 일이다. 육사는 생도들이 오로지 안보와 애국 의식에 종교적 수준으로 집착해 하여 시민의 일반적 의식과 괴리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군에서의 출세와 진급이라는 유혹으로 자극했다. 그 이들에 부여한 민 교장이 보기에 이제 육사는 괴물이 된 거다. 민 교장이 전 생도를 강당에 집합시켰다. 여기서 그는 한 시간 동안 "진급과 출세가 육사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라며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라며 설득을 했다. 그러나 한 번 물욕에 집착하며 괴물이 된 육사는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때 강당에서 민 교장의 훈시를 들은 1학년 생도들이 바로 이번 12·3 내란 사태의 육사 48기다.

1988년 당시의 육사 상황을 지금의 내란 사태와 인과관계로 엮는 데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 뒤를 따르는 시대상 속에서도 역사와 사회에 대한 균형은 추구하고 고뇌하던 생도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고위 장성으로 군에 아직 남아있는 그 기수는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다. 생도 시절의 그릇된 가치관 형성, 군에서 치열한 진급과 보직 경쟁을 겪으면서 지난 36년 간 군의 직업 정신이 왜곡된 48기 전후 기수들은 특히 그렇다. 이 기수들은 입학 시절부터 추구부는 전두환과, 럭비부는 노태우파로 분류되어 급식에서도 특혜를 받고, 장교로 임관 후에도 선배들로부터 배려를 받는 것부터 배웠다. 운동부 출신들이 끈끈하게 엮힌다는 점은 1993년의 하나회 적결과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다. 육사에서 가르쳐 온 줄 서는 문화, 맹목적인 충성, 극우로 경도된 가치관 등은 이제 괴물이 된 채 40년 가까이 공고화 되었다. 이 점이 바로 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우리가 모르는 세계였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 12·3 내란 사태 전후에 저항한 장군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그러나 내란 사태 이후에 양심 고백하는 사령관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의 일이다. 더 놀라운 사실도 말씀드릴까? 내란 가담자로 의심받는 48기 전후 기수들에게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중 한 인물은 필자가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잘못 말하더라며 몹시 즐거워했다는 거다. 내란 혐의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 중에 필자가 이름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조차 너무나 좋았나 보다. 우리가 기대하던 반성하는 상식형 군인과 달리 "명령하면 복종하는 게 군인"이라며 권력에 대한 극단적 추종을 여전히 정당화하는 여인형과 같은 괴물이 아직 훨씬 많다. 민주공화정은 군에 대한 시민적 통제(civil control)를 핵심 규범으로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3월 삼정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김용현, 신원식, 여인형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 대권'을 최초 언급한 이래 윤석열의 영구집권을 위한 모의가 최소한 7차례 있었다. 비상대권이란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한 이후 별도 입법기구를 통한 과도적 통치 체제를 갖춘다는 의미다. 이번 내란의 진정한 목적은 민주공화정의 문민통제를 전복하는 사실상의 총통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육사 생도 시절부터 지니온 사상과 이념의 최후적 모습 아닌가.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전북을 만들자

새해가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도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연말 탄핵정국의 혼란에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비극이 온 국민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여명과 함께 새벽시장이 열리고, 공장이 돌아가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전북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다. 전북 역시 그러한 노력으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연말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과 제주항공 참사를 목도하면서 크게 느낀 바 있다. 국가와 사회 기강이 흔들리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미치지지 말았다. 지금도 내란 세력을 일소하지 못해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고 이는 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는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키워야 할 때다. 민생은 도정의 존재이유다.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다양한 특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테스트 베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북형 스마트공장화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핵심 산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도전 정신은 전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다. 민주도시, 문화도시로서의 전북의 자부심과 조지일꾼의 자세로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도 빛난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 지난해의 도전과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는 더 큰 비상을 이루어야 한다. 전북은 변함없이 노력하는 도민들의 힘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을사년 새해, 전북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전북 도민 모두가 함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주 경기전 하마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지정일 - 2013년 11월 15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풍남동3가, 전주사고)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월 6일 월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제2호)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설야 / 이 외 수

사람들은 믿지 않으리 내가 홀로 깊은 밤에 시를 쓰며 눈이 내린다는 말 한마디 어디선가 나귀등에 몽상의 붓짐을 싣고 나그네 하나 떠나가는지 방울소리 들리는데	창을 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함박눈만 쌓여라 숨죽인 새벽 두 시 생각나느니 그리운 이어 나는 무슨 이유로 전생의 어느 호젓한 길옆에 그대를 두고 떠나왔던가 오늘밤엔 기다리며 기다리며 간직해 둔 그대 말씀	자욱한 눈송이로 내리는데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으리 내가 홀로 깊은 밤에 시를 쓰면 울고 싶다는 말 한마디 이미 세상은 내게서 등을 돌리고 살아온 한 생애가 부질없구나 하지만 이 시간 누구든 홀로	깨어있음으로 소중한 이어 보라 그대 외롭고 그림자던 나 날 속에 저리도 자욱히 내리는 눈 아무도 걷지 않은 순백의 길 하나 그대 전생까지 닿아 있음
--	--	---	--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인제고를 졸업하고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했다. 군 제대 후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훈장' 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등단했다. 시집 '겨울나기', 장편

**JBT**  
전북도민의 희망찬 미래의신문  
전북타임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0

# 시민과 함께하는 김제시의의회, 2025년 새로운 도약



제9대 후반기 김제시의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2024년 7월 2일 개원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김제, 최강 의회, 현장 의회, 스마트 의회'라는 의정 비전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작년 하반기 회기 운영에 있어 본 의회는 총 5회에 걸쳐 65 일간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해 1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27건이 가결돼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했으며, 22건의 5분 자유발언과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실시돼, 총 776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정 36건, 주의 74건, 개선 324건, 권고 271건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조 294억원, 특별회계 990억원, 총 1조 1,284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4% 증액된 것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현정 질서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와 결의안 채택을 통해 지방의회의 소임을 다하였으며,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의 면모를 보여줬다.

김제시의의회는 2024년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2025년도 을사년을 맞이해 보다 진일보한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새해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김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 ▲서백현 의장 “소통과 존중,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상 정립”

서백현 의장은 새해 시민을 위한 의정이라는 뜻의 “위민 의정(爲民議政)”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김제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하며, 의원 간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더 나은 김제시의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을사년도에 김제시의의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의 행복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정자 부의장 “시민 대변자 역할에 충실한 의회 구현”

이정자 부의장 또한 “다양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기 좋은 김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김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뱀처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김제시의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 ▲전수관 위원장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회 실현”

지난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집중하며, 의회 운영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점검했다. 의원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에 주력해 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새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2025년 각종 정책과 예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이어 말했다

### ▲문순자 위원장 “시민 중심 행정과 공공 이익 증진 노력”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했다. 시정의 주요 시책 추진 상황과 집행 실태를 면밀히 감시·감독하고, 김제시 주요 사업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행복과 공공 이익 증진에 힘썼다. “행정경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 서비스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 ▲오승경 위원장 “시민 안전과 윤택한 생활 환경 조성 노력”

지난해 안전개발위원회는 시민이 안전하고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김제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 인프라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신년에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 ▲오승경 위원장 “시민 안전과 윤택한 생활 환경 조성 노력”



안전개발위원회는 시민이 안전하고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김제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 인프라 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 ▲최승선 위원장 “2025년도 본예산 철저한 심사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정 혼란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수입 저조 등 제한된 예산 환경에서 34억 원의 비효율적 예산을 삭감하고, 총 1조 1,180억 원의 예산을 의결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 ▲김영자 위원장 “시민 참여단 도입과 투명한 감사 운영 노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도입으로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를 진행하며 올바른 시정 운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5년 김제시의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편집=김은지 기자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Global TOP 100

재학생 만족도? 전북대가 최고! 6년 연속 1위

2019~2024 KS-SQ(지방국립대 부문, 한국표준협회)

모집단위 광역화 전공 자율선택제 최첨단 교육여건

2025 QS 세계대학평가 거점국립대 3위 국내 21위

학생중심 대학교육을 선도하는 글로벌대학,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